

전자부품 對日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對日 수출확대 방안

1. 한·일 전자부품 산업 생산 및 내수 추이

■ 한국 전자부품산업 생산 및 내수 추이

2002년에서 2007년까지 한국 전자부품산업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반도체, LCD, 2차전지의 고성장에 힘입어 생산은 15.8%, 내수는 13.7%로 매년 두자릿수씩의 견조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1월에서 3월까지의 성장률은 반도체 부문의 경쟁심화에 따른 판가하락 및 매출 위축 영향 등으로 생산은 2.5%, 내수는 7.4%의 성장에 그쳐 성장 둔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한국 전자부품·소재 생산·내수 추이 〉

(단위 : 십억원, 증감률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CAGR(02~07)	2008.3~9월
생산	54,993	66,856 (21.6)	89,831 (34.4)	96,385 (7.3)	103,640 (7.5)	114,328 (10.3)	15.8	23,070 (2.5)
내수	47,832	57,150 (19.5)	72,464 (26.8)	77,835 (7.4)	81,332 (4.5)	91,064 (12.0)	13.7	18,531 (7.4)

자료 : KEA



우성재 수석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일본 전자부품산업 생산 및 내수 추이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일본 전자부품산업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생산은 3.6%, 내수는 1.3%로 매년 한자릿수씩의 플러스 증가세를 기록했다.

〈 일본 전자부품·소재 생산·내수 추이 〉

(단위 : 십억원, 증감률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CAGR(02~07)	2008.3~9월
생산	8,749	9,182 (4.9)	9,779 (6.5)	9,256 (-5.3)	10,169 (9.9)	10,442 (2.7)	3.6	2,600 (3.0)
내수	4,558	4,552 (-0.1)	4,809 (5.6)	4,312 (-10.3)	3,857 (-10.5)	4,859 (26.0)	1.3	1,443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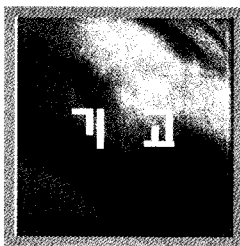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재무성,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자료 KEA 재구성

2. 한·일 전자부품산업 수출 및 수입 추이

■ 한국 전자부품산업 수출 및 수입 추이

2002년에서 2007년까지 한국 전자부품산업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디스플레이패널 등 주력부품의 고성장에 힘입어 수출은 23.1%, 수입은 12.9%로 매년 모두 두자릿수씩의 견조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매년 144.7%씩 큰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성장률은 글로벌시장에서의 반도체 D램가격 급락에 따른 관련기업 매출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은 4.6%, 수입은 16.3%의 성장을 시현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흑자를 시현했으나, 전년동기대비 흑자규모는 17.5% 감소되었다.



〈 한국 전자부품·소재 수출·수입 추이 〉

(단위 : 백만불, 증감률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CAGR(02~07)	2008.3누계
수출	22,240	26,189 (17.8)	34,360 (31.2)	40,867 (18.9)	56,128 (37.3)	62,934 (12.1)	23.12	5,466 (4.6)
수입	21,982	26,532 (20.7)	29,888 (12.6)	31,725 (6.1)	35,144 (10.8)	40,308 (14.7)	12.9	18,530 (16.3)
무역수지	258	-343 (-)	4,472 (-)	9,142 (104.4)	20,984 (129.5)	22,656 (8.0)	144.7	6,936 (-17.5)

자료 : KEA

■ 일본 전자부품산업 수출 및 수입 추이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일본 전자부품산업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수출은 6.3%, 수입은 6.7%, 무역수지는 5.9%로 매년 한자릿수씩의 성장률을 시현했다. 그러나 올해 1월에서 3월까지의 성장률은 수출은 -9.7%, 수입은 -4.1%, 무역수지는 -19.8%로 세가지 교역지수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 일본 전자부품 수출·수입 추이 〉

(단위 : 십억엔, 증감률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CAGR(02~07)	2008.3누계
수출	8,089	8,670 (7.2)	9,518 (9.8)	9,746 (2.4)	10,889 (11.7)	10,967 (0.7)	6.3	2,449 (-9.7)
수입	3,898	4,040 (3.6)	4,548 (12.6)	4,802 (5.6)	4,577 (-4.7)	5,384 (17.6)	6.7	1,292 (-4.1)
무역수지	4,191	4,630 (10.5)	4,970 (7.3)	4,944 (-0.5)	6,312 (27.7)	5,583 (-11.5)	5.9	1,159 (-19.8)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재무성,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자료 KEA 재구성

■ 한·일 양국간 전자부품산업 교역동향 및 추이

2002년에서 2007년까지 한국 전자부품산업의 최근 5년간 對日교역 연평균 성장률은 수출은 18.1%, 수입은 7.2%로 견조한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반면에, 무역수지는 9.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장기트렌드에 있어서는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나, 전자부품 한·일 교역통계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88년 이래로 20여년간 무역수지 적자상태는 계속되고 있으며, 2007년 부터는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 한국의 對日 전자부품·소재 수출·수입 추이 〉

(단위 : 백만불, 증감률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CAGR(02~07)	2008.3누계
수출	2,924	3,701 (26.6)	4,028 (8.8)	4,683 (16.3)	7,042 (50.4)	6,722 (-4.5)	18.1	2,397 (-10.2)
수입	6,061	7,266 (19.9)	7,525 (3.6)	7,677 (2.0)	7,734 (0.7)	8,596 (11.2)	7.2	3,700 (13.3)
무역수지	-3,137	-3,565 (13.6)	-3,497 (-1.9)	-3,194 (-8.7)	-692 (-78.3)	-1,874 (170.8)	-9.8	-1,303 (118.6)

자료 : KEA

3. 최근 전자부품·소재의 주요품목별 對日 무역수지 현황

■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했던 품목은 흑자규모가 축소되었는데, 특히 2007년 5월누계 최대 흑자품목이었던 LCD의 무역흑자 규모가 반토막('07.5누계 : 7억7천만불 → '08.5누계 : 3억9천만불) 났다.

LCD의 對日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9월까지의 삼성+소니 합작사(S-LCD)의 對日수출 호조로 높은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10월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된 이후, 올해 5월까지 19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LCD의 對日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주요인은 일본 수요기업의 공장이 중국, 유럽 등 해외로 이전한 때문이며, 따라서 국내 LCD 제조기업의 對日수출은 감소하는 반면에, 對세계 수출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 한국 LCD 주요기업 수출·내수·매출 추이 〉

(단위 : 억원, 증감률 %)

구 분	2006	증감률	2007	증감률	2008년1-5월	증감률	
삼성전자(LCD)	수 출	104,570	21.4	130,368	24.7	37,977	50.7
	내 수	12,452	13.4	16,236	30.4	5,415	67.4
	합 계	117,022	0.514	6,604	25.3	43,392	52.6
LG 디스플레이	수 출	93,550	15.3	131,372	40.4	38,906	62.8
	내 수	8,457	8.9	10,262	21.3	2,915	34.6
	합 계	102,007	14.7	141,634	38.8	41,821	60.5

자료 : 각사 금감원 공시자료

〈 2008년 5월(누계) 전자부품 對日 무역흑자 주요품목 현황 〉

(단위 : 천불, 증감률 %)

구 분	2007.5(누계)	2008.5(누계)	증감률	
축전기부품(833330)	수 출	870	599	-31.1
	수 입	184	457	148.4
	무역수지	686	142	-79.3
천연색음극선관(832110)	수 출	522	202	-61.3
	수 입	54	18	-66.7
	무역수지	468	184	-60.7
LCD(836110)	수 출	834,404	475,758	-43.0
	수 입	67,742	86,066	27.0
	무역수지	766,662	389,692	-49.2
증폭기(831130)	수 출	13,654	12,591	-7.8
	수 입	1,872	2,728	45.7
	무역수지	11,782	9,863	-16.3

자료 : KEA

〈 2008년 월별 전자부품·소재 對日 무역적자 주요품목 현황 〉

(단위 : 백만불,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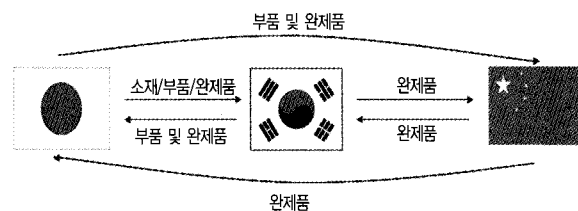
구 분	2008.1	2008.2	2008.3	2008.4	2008.5	2008.5(누계)	
기타집적회로반도체(831190)	수 출	21	12	12	12	13	70(-43.7)
	수 입	28	29	39	37	26	159(11.9)
	무역수지	-7	-17	-27	-25	-13	-89(-39.7)
기타개별소자반도체(831390)	수 출	4	5	6	6	6	26(32.2)
	수 입	48	55	69	100	79	352(61.9)
	무역수지	-44	-50	-63	-94	-73	-326(-65.0)
실리콘웨이퍼(831500)	수 출	4	3	4	4	5	19(-11.3)
	수 입	153	122	142	117	139	674(22.0)
	무역수지	-149	-119	-138	-113	-134	-655(-23.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831120)	수 출	143	161	121	93	95	613(-13.3)
	수 입	257	234	190	175	184	1,040(-3.1)
	무역수지	-114	-73	-69	-82	-89	-427(-16.6)
콘넥터(834200)	수 출	3	3	3	3	3	17(17.3)
	수 입	33	34	34	40	32	173(13.4)
	무역수지	-30	-31	-31	-37	-29	-156(-13.0)
PCB(834300)	수 출	8	6	9	7	6	35(17.5)
	수 입	41	49	41	36	41	207(3.3)
	무역수지	-33	-43	-32	-29	-35	-17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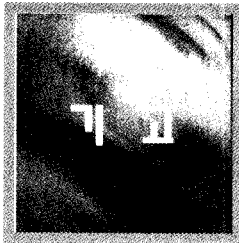
자료 : KEA

4. 한국 전자부품·소재의 對日 무역적자 급증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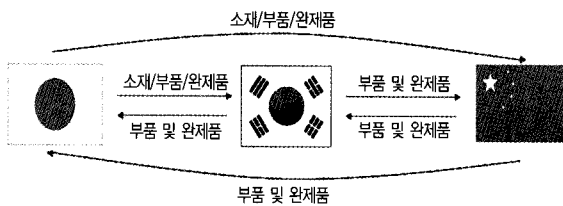
■ 한·중·일 3국의 전자부품·소재산업 분업구조

- 과 거





- 현재



- 對日교역: 부품수출 확대, 소재수입 확대
(수출) 부품·완제품 → 부품·완제품
(수입) 소재·부품·완제품 → 소재·부품·완제품
- 對中교역: 부품수출 확대, 완제품수입 확대
(수출) 완제품 → 부품·완제품
(수입) 완제품 → 부품·완제품

■ 한·중·일 3국의 분업구조 변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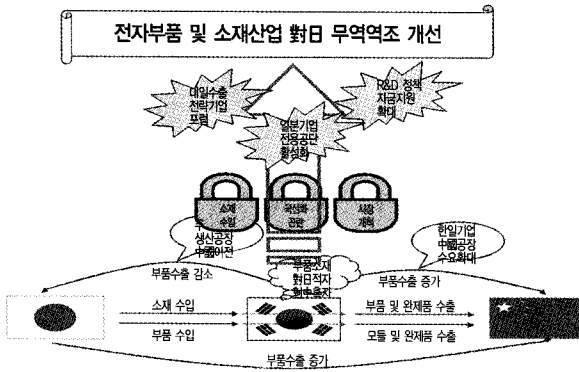
- 일본: 對韓 소재수출 확대, 對中 완제품 수입 증가
 - 對韓교역: 소재수출 확대, 완제품수출 감소
(수출) 소재·부품·완제품 → 소재·부품·완제품
(수입) 부품·완제품 → 부품·완제품
 - 對中교역: 소재수출 확대, 완제품수입 증가
(수출) 부품·완제품 → 소재·부품·완제품
(수입) 완제품 → 부품·완제품
- 중국: 對韓 부품수출 확대, 對日 소재수입 확대
 - 對韓교역: 부품수출 확대, 부품수입 확대
(수출) 완제품 → 부품·완제품
(수입) 완제품 → 부품·완제품
 - 對日교역: 부품수출 확대, 소재수입 확대
(수출) 완제품 → 부품·완제품
(수입) 부품·완제품 → 소재·부품·완제품
- 한국: 對日 소재수입 확대, 對中 완제품수입 확대

■ 전자부품·소재 對日 무역적자 급증요인

- 핵심소재 對日수입 지속
- 수입되고있는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동안 대규모의 자본투자를 진행해도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관련기업에서는 소재개발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서 소재가 개발되더라도 이미 신뢰성검증을 마친 기존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상당기간의 테스트기간이 필요하며, 테스트후 수요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경쟁을 거쳐야 함
- 일본기업의 핵심소재 주도권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산화가 어려워 일본소재 관련기업유치하려 해도, 일본기업은 기술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어 선뜻 한국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음
- 국내기업 전자부품 제조공장 해외이전 증가

-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많은 일본기업이 현지에 대형 공장을 건설, 가동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주요기업들도 대부분 중국 현지에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한·일 기업 모두 중국에 대형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소재수입은 일본, 반면에 부품제조 후 수출은 중국으로 함으로서, 對日수입 증가분이 고스란히 對日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5. 전자부품·소재 對日 무역역조 개선 및 수출확대 방안



■ 전자부품 對日 무역흑자 품목 발굴 및 지원 확대

- 한·일 유력기업간 전략적 제휴분위기 확산 추진

- * 사례1: 삼성전자 + SONY → LCD 對日수출 확대 기여
- * 사례2: LG전자 + NIT도코모 → 휴대폰 對日수출 확대 기여
- * 사례3: 팬택 + KDDI → 휴대폰 對日수출 확대 기여

〈삼성전자와 소니의 협력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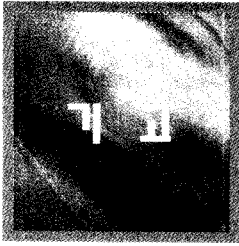


■ 전자부품 對日 무역적자 품목 국산화 및 사업화 지원 확대

- 반도체 제조용 부품·소재 분야 R&D 지원 확대
 - * 실리콘웨이퍼, 리드프레임, PCB 등
- 비메모리반도체 분야 R&D 지원 확대
 - * System LSI, DDI, Smart Card, CIS 등
- LCD 제조용 부품소재 분야 R&D 지원 확대
 - * 컬러필터, 편광판, 액정물질, 유리기판, 프리즘시트 등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계획〉





■ 국산화가 어려운 전자부품·소재는 일본기업 투자유치 추진

- 부품소재 일본기업 전용공단 설립 및 활성화
- * 한국에 투자하려는 일본기업에 투자잇집 제공 확대
- * 일본 부품소재기업 투자유치 전담기관 선정 및 지원

〈일본 노무라연구소와의 투자유치 협정 체결〉



- 한·일 FTA 추진의 전략적 활용
- * 교역불균형 상태에서의 FTA는 상생발전 목적달성 불가
- * 국내기반 취약품목 관련기업의 한·일 FTA 반대 우려
- * 당장은 한국투자가 큰 잇점이 없을지라도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로 한·일 FTA 체결이 앞당겨질시 한·일 기업 모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익 발생

■ 전자부품·소재 수급기업 포럼 구성 및 운영

- 국내 對日수출 희망기업들과 일본 수요기업 CEO 및 구매담당 고위임원간의 만남의 장 마련

- 기술력은 있으나 對日수출을 위한 현지거래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내기업에 현지 거래선 만남 기회 제공
- (한국)IT+(일본)자동차·조선·기계 등 이중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일본 비IT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IT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한·일 IT 주요부품·소재 전문기술자 포럼을 운영하여, 국내기업의 애로기술 간접습득 기회 제공
- 독일 등 주요 소재기업 CEO 초청 및 국내 수요기업과의 Meeting을 통해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수입선 다변화 유도

■ 국내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강화

-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계 강화
- 일본 퇴직기술자의 국내 중소기업 채용으로 일본 노령자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에게는 기술 이전 기회 제공

■ 부품소재산업 육성기관 역할확대 및 기능 강화

- 부품소재산업 활성화관련 역할 확대 → One Stop Service 기관
- 부품소재산업 육성기능 강화 → R&D·투자 및 對日 시장개척